

오노다순조우(小野田俊藏), 티벳 불교 문화의 전개

모자를 머리에 쓰고

땀기 땀아 묶은 머리를 등 뒤로 넘겼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녀

"자, 그럼."이라고 말하는 그

"당신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니 괴로워."라는 그녀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그

그 새, 하얀 학아!

나에게 그 날개의 힘을 빌려주렴

그다지 멀리 갈 생각도 없어

리탕을 돌고 돌아올게

(달라이 라마 6세 시집에서)

1. 전생활불(轉生活佛)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 가타카나로 된 고유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게 티벳어와 몽골어로 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티벳과 몽골 관계의 책을 보시면 가타가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타가나 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가타가나 표기를 쓰고 있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티벳어와 몽골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중에 나오겠지만 '쿠빌라이 한'이라고 써있는 것과, '쿠빌라이 칸'이라고 써있는 것 등 다양합니다.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전통적인 가타가나 표기에 따라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비교적 시간이 많으니, 잠시 평소에 듣지 않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벳'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선 '달라이라마'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하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떤 작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저의 명함에는 달라이라마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건 꽤 효과가 있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린다고 말합니다만,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티벳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밀면, 마치 저를 굉장히 고귀한 사람처럼 믿어서, 막 예배를 할 듯한 대접을 받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일본에서도 유명해서, 그 나름대로의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봄에 홀랜드의 라이덴이라고 하는 곳의 대학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티벳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국제학회입니다만, 그 학회는, 중국을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들과 망명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국대표는 사회과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명함을 내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최

근 라싸에서는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공공장소에서 내보이면 처형 대상이 됩니다. 수 년 전까지는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성하의 사진이 놓여 있기도 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 가봤더니 철거되어 없더군요. 그래서 제 명함에 있는 사진은 최근의 성하의 모습이니 갖고 싶은데, 주위의 눈이 있어서인지, 상대방은 굉장히 복잡한 얼굴이 됩니다. 그 다음날이 되면 소문으로 들어서 "실례합니다만 명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하고 찾아오는 티벳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신앙은 엄청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이라마는 티벳인에게는 신앙의 대상으로,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대합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활불(活佛)'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표현이에요. 중국어로 활동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지만, 티벳어 자체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툴쿠'라고 합니다만, '툴'은 변질을 말합니다. '쿠'라는 것은 신체를 의미합니다. 즉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변화신(變化身)'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대(先代), 즉 달라이라마 13세가 약간 모습을 바꿔서 또 이 세계에 나오신 모습이 14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활동하는 부처라고 하는 의미는 티벳어 중에 어딜 찾아봐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자로 '활불'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신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티벳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꿔 태어나는 것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툴쿠는 티벳인 사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쓸어다 내버릴 정도로 있어요. 쓸어다 내버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쓸어다 내버릴 정도 있어요. 중국 내에도, 망명자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외국인과 접촉하는 사람의 80% 정도는 툴쿠, 즉 활불이에요. 중국의 불교협회 등에서 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툴쿠인데, 저는 가끔 그 사람의 통역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역을 하고는, 중국 불교협회의 명함을 받곤 하는데, 중국불교협회 뭐, 이사라든가 신분 같은 것이 적혀져 있고, 누구누구 활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귀로 들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명함에 '누구누구 활불'이라고 써져 있으면 굉장해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부처님이라고 명함을 내고 있으니 왠지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이 호칭은 언젠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원에서부터 '활불'이라는 의미가 없다면 일본어 표현으로서도 '활불'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티벳인들은 선대가 모습을 바꿔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나중에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변질'입니다. 뱀을 '툴'이라고 합니다. 근접한 단어지요. 어근은 같습니다. 뱀은 탈피를 하지요.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13세가 탈피해서 14세가 나왔다, 그 정도의 이미지를 티벳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치즈 같은 것이 부패합니다. '썩다, 부패하다' 또는 '화학적변화'라고 하는 것도 '툴'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는 우유가 변질해서 버터로 되거나 하는 것, 그것이 '툴'입니다. 그러니까 티벳인들의 머릿속의 활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선대 분이 '조금 쪼글쪼글하게 되었으니 오래된 이 몸을 이제 그만 버려볼까나~.' 해서 그 육신을 버리고서

선대 분은 돌아가시고, 그 후 새로운 대(代)의 사람으로 탈피해서 나오는 것 정도의 이미지를 티벳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활불’이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꽤 틀린 것이므로 그 점을 우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금 14세입니다. 14세는 꽤 유명해지셨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굉장한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유명인이 되신 후로는 측근들에 의한 경호가 철저해져서, 올 4월 (2000년) 일본에 오셨을 때에 만나 뵈었는데, 보안 검사가 보다 엄격하게 되었던군요. 지금까지 4, 5번 만나 뵈었는데, 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노벨상을 받으신 후부터는 굉장히 경호가 철저해져서 내각의 조사실의 사람이라든가, 올해에는 교토부 경찰서의 사복경찰인지 원지 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해서 좀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도 아니고 비교적 간단하게 만나 뵈었는데 말이죠. 맨 처음에 뵈었던 것은 제가 스무 살 때입니다.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친견했었습니다.

13세라고하는 분은 꽤 유명하다고 할까, 위대했다고 합니다. 이는 카와구치에카이(河口慧海)씨, 타다토우칸(多田等觀)씨를 비롯한, 지금보다 한 세대 전의 티벳학자들이 접했던 분이 13세입니다. 수영을 기르던 분이지요. 달라이라마를 그릴 때, 코 아래 수영을 붙여 그리는 분은 13세와 5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도중 나오겠지만, 달라이라마 5세는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는 최고의 영향력,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분으로, 티벳인들에게 달라이라마 중에서 어느 분이 대표적인지 물으면 '앙가파'라고 말합니다. '앙가파'란 5세라고 하는 의미로, '달라이라마 5세'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5세'라고만 말합니다. '삼대장군(三大將軍)'이라고 하는 것처럼(삼대장군인 이에미츠(家光)를 그냥 '삼대장군'이라고 부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티벳인에게 '5세'라고 말하면 당연히 달라이라마 5세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2. 달라이 라마 6세와 그의 연애시

한편 가장 재미있다고 할까, 제가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세입니다. 6세의 연애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대상으로서 바라보는 달라이라마의 이미지와는 꽤 다릅니다. 연애시이지요. 음미하면 음미해 볼수록 끝립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임시로 번역하긴 했지만, 좀처럼 출판할 만한 기회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전부 60개정도 있습니다. 거의 연애시인데, 꽤 심오한 시가 남아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달라이라마가 왜 이런 연애시를 썼을까요? 달라이 라마 6세는 그 중에서 제 50계에 나와있는 것처럼 매일 밤 포탈라 궁전을 빠져 나와서, 아랫동네 솔이라는 곳에 외출합니다. 솔이라고 하는 곳은 궁정거리 또는 여러가지 가게가 늘어난 거리였는데, 그런 곳에는 꼭 술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속되어 있지요. 대체로 관공서 근처에는 그러한 환락의 거리가 근접해 있는 겁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솔이라는 곳은 꽤 최근까지 있었습니다만, 포탈라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소문이 돌자, 중국정부는 갑자기 솔 근처를 뒤로 내빼서 썩 치워버렸습니다. 천안문광장처럼 넓고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광장을 만든 겁니다. 지금 티벳에 가면 포탈라궁 앞에도 그와 같은 굉장히 넓은 광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정 중

양에 우뚝 깃대가 서있고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꽤 나쁜 군.’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것은 등록됨과 동시에 이제는 보수작업조차도 간단히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성홍기를 세운 광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치겠습니다. 솔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술집도 있거니와 다양한 사무소도 있고, 여러 거래업자, 상인들도 있으며, 서점도 있는, 과연 티벳다운 곳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달라이라마 6세는 밤마다 놀러 나가서, 아침 무렵에 돌아옵니다. 다른 시에서 아침 닭에게

"닭아, 울지마. 네가 울면 포탈라에 돌아가야 하잖아."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시입니다.

또, 솔의 입구에 턱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던 개가 있었습니다. 티벳에는 개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개가 축- 늘어져 자고 있어요. 6세는 그 개에게 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자애한테 가는 건 비밀로 해줘.

비밀로 했는데 눈 위에 발자국이 나버렸네."

이 표현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눈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업(業)의 비유로서 잘 쓰이고 있지요. 표면상은 "아차! 발자취를 남겨놓았잖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나가 놀고 포탈라에 돌아오곤 합니다. 포탈라에 있을 때는 창양 감초, 이것이 달라이라마 6세의 본명입니다. 그렇지만 솔에 있을 때는 담상 왕포라고 하는 별명, 위명(僞名)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에 있습니다만, 달라이라마 6세는 장발인데, 대부분의 티벳 남성은 장발을 세가닥으로 땋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티벳 남자다운 모습인 것이죠. 세가닥으로 땋아 늘어뜨린 머리는 남자의 상징, 용감한 사람의 표시인 것입니다. <쿤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쿤둔의 아버지의 머리 형태, 바로 그것이 가장 남자다운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 머리 스타일이 달라이라마 6세의 시에도 나옵니다. 여자에게로 가서 있다가 외관을 적당히 단정하게 고치고서 포탈라에 돌아가려고 할 때, 아침에 땋은 머리를 목을 돌려 등 뒤로 획 넘깁니다. 그것이 돌아간다는 신호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말하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6세는 승려가 아니었던 것일까, 땋아 내린 긴 머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달라이라마 6세는 16살 때에 ‘게출’이라는 스님이 되기 전 단계의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티벳에서도 일본처럼 20살이 되면 구족계라고 하는 계율을 받아 비구가 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6세는 그 사미계를 18살 때 즈음 스승에게 반환하러 갑니다. "저 승려 그만둘래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6세는 스님이 아닌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티벳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티벳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는 달라

이라마입니다. 승려든 승려가 아니든 달라이라마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 달라이 라마 6세는 이런 시를 읊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일까?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공부를 통해서 이 달라이라마 6세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 6세는 그 후 중국의 청조(淸朝)의 명령으로 북경에 소환되는 도중에 청해호(湖) 근처에서 죽습니다. 20대 전반에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18살부터 22살 정도 사이에 지은 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걸어야 했던 것일까,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이해하게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꽤 긴 이야기가 있으니까 각오하고 들어주세요. 정말로 길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별로 연관 없는 것 같은 부분부터입니다.

3. 대 몽골제국과 티벳 불교

티벳불교와 몽골의 가장 처음 만남은 칭기즈칸의 시대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꾸며낸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너무 유명해서 티벳과 몽골의 불교사를 전하는 자료에 잠깐 나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후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은 몽골과 티벳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은, 칭기즈 후를 이은 3男 오고타이 때입니다. 오고타이에게는 장남인 구육, 차남인 고덴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차남 고덴에게-이것은 칭기즈칸의 시대부터 계획되어왔던 것입니다만-남방에 가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몽골의 황제는 청해(靑海), 티벳 쪽을 손에 넣고 싶던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덴은 1239년에 군사를 이끌고 티벳 쪽으로 진군합니다.

몽골인의 전투법은 꽤 교묘해서 전쟁에 뛰어납니다. 몽골, 남주, 남시베리아의 사람은 역시 전쟁에 뛰어나요. 사냥 수법이 응용되었기 때문일까요?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로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의 북한 사람들의 외교 수완입니다. 굉장히 무리하면서, 그렇게 해도 관찮을까 아슬아슬하면서도 흥정술로서는 대단하지요. 미국을 상대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역시 저 일대의 사람들의 특성이지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면 끝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몽골군은 한번에 공격하러 갑니다. 한번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한 마을을 공격하자고 계획하면, 갑자기 몰려 가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거칠게 해대고는 획 몰러옵니다. 몰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는 단계에서 획 몰러난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몽골인의 전쟁 작전이지요. 그러면 서서히 소문이 퍼져 가지요. 그 소문이라는 것이 공포감을 배로 증가시켜 갑니다. 갑자기 막 와서 무지막지하게 하고 나서는 갑자기 획 가버리는 것. 그리고는 (몽골 측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사절을 보냅니다. 공물과 세금을 보내라고 하는 심부름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서우니까 몽골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이나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티벳을 공격했던 때도 그렇습니다. 티벳에 대표자를 보내라, 교류 대표자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티벳 쪽에서는 누가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티벳 전국을 통괄하는 정권세력은 없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작은 씨족 정권이 해당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정도였고, 전국을 다루는 정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종교적 권위를 갖는 자, 티벳에서 가장 위대한 스님을 교류를 위한 대표자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 때 ‘사카판디타’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 사카판디타란 사카파라고 하는 종파의 장입니다. ‘사카 판첸 쿤가 겐첸’이 사카판디타의 정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로 선정되어서 교류를 위해 파견됩니다. 그때까지 사카판디타는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의 저술이 남아있는데, 저희 불교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한참 노력했는데도 지금까지 그의 저술을 전부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상당히 깊은 내용의 논서를 매우 많이 남겼습니다.

사카판디타는 어린 조카 도군 추겔 팍파와 그 동생인 도공 짝나라고 하는 11살, 6살의 조카를 데리고 고덴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고덴에게 불교를 포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 티벳은 군사력이 약해서 몽골에 거스르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사카판디타는 불교를 널리 퍼는 일, 이것이 티벳을 구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티벳으로 보냅니다. 즉 군사적으로는 몽골의 승리, 티벳의 패배이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티벳이 우위에 있으며, 몽골인들이 신자가 될 것이라는 구도가 그 당시 사카판디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은 그대로 계속 계승되어서 원, 명, 청의 중국의 세 개 왕조까지 이어졌으며, 유라시아대륙의 대부분이 티벳불교의 신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앞서 예견한 사카판디타라고 하는 이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뒤를 부탁할 아이들을 여행에 데리고 간 점, 이것은 좀 기발한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한 일이 되었습니다. 즉 티벳을 떠날 때 조카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카판디타는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사카판디타는 그 후 티벳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외지에서 사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반생을 거기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서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그래서 팍파라고 하는 이는 대단한 학자가 됩니다. 팍파는 그 후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만,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대 몽골제국황제 오고타이의 다음을 이었던 이는 고덴의 형인 구육입니다만, 이 제4대 황제인 몽케는 굉장한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유럽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고타이 때는 비엔나 근방까지 몽골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는 티벳학이 대성한 곳으로, 자주 학회가 열리곤 하는데, 오래된 성 안에는 몽골의 영향이 보이는 문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개 헝가리 인들은 스스로를 훈족의 자손이라고, 아시아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럽을 공격했던 그 전장의 전선에 몽케가 있었는데, 그의 교양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몽케가 특히 잘했던 것은 기하학입니다. 또 어학 방면에도 뛰어나서, 버티칸에서 사절단이 몽케에게 몇 번인가 왔었는데, 그 때 통역관 없이 이야기하는 몽케를 보고 사절단은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몽케에게 정권이 옮겨간 후, 팍파는 몽케에게 불교를 전합니다. 그 후에는 쿠빌라이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등 팍파는 몽골 황제의 개인교사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한편 몽케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중국을 손에 넣고 싶어했습니다. 몽케는 다음 시대는 ‘대항해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말로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다음 시대는 배의 시대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던 것입니다. 몽케는 유럽의 교양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항구를 가지고 싶고, 중국의 해안선이 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동반부는 몽골의 것입니다. 미국 대륙은 당시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즉 세계의 대부분을 몽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이 황제 몽케의 것이었는데, 몽케는 거기에서 해안선까지 차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격의 전선에서 몽케는 급사해 버리고 맙니다.

몽케의 후속자 후보로는 몽케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차남 쿠빌라이는 일방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서 황제선언을 합니다만, 낯짝인 에릭부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형제 중에서 쿠빌라이의 바로 아래 동생인 훌라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프간부터 아라비아반도 방면을 공격해 거기에 자리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훌라구 우르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르스'란 구성원이라는 의미인데, 훌라구 일족이 그 곳에 사는 것입니다. 또는 '일칸국'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곳에 살면서 말하는 것마저 현지의 언어로 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은 어딘가에 가서 공격하고 그 나라를 손에 넣으면, 공격한 쪽의 언어, 종교, 문화를 펼치기 마련입니다. 일본이 대륙과 반도에 가서 억지로 일본어교육을 시켰듯이, 보통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몽골은 반대입니다. 공격해서 손에 넣으면, 지배하는 몽골 편이 바뀝니다. 몽골 쪽이 그곳의 본토 언어로 말하고, 그곳의 종교를 믿고, 그곳의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라구는 이슬람을 신앙하고, 언어는 페르시아어와 아라비아어, 문화도 원래 있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인도에 무갈제국이라는 것이 생기지요.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이 '무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발음일 뿐 '몽골'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전에 '티무르'라고하는 왕조가 파키스탄에서부터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만, 이것은 데무르이라고 하는 몽골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원 최후의 황제는 퉁주 데무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곤 데무르라는 이름입니다. 티무르는 칭기즈칸이 되고 싶어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칭기즈가(家)와는 전혀 다른 혈통입니다. 티무르 왕조를 만들 때 "뭔가 어떻게 안될까?"하며 궁중학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궁중학자는 열심히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티무르 왕은 칭기즈칸과는 연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먼 친척의 피를 이은 처녀를 아내로 하여서, 가계도에 칭기즈가의 사위라고 적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칭기즈가에 속했다며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 왕조가 티무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무갈도, 티무르도 몽골과 관계가 깊은 왕조입니다. 그들의 먼 선조가 훌라구라고 하는 쿠빌라이의 형제였지요.

쿠빌라이는 중국에 가서 일반적으로는 원조(元朝)라고 불리는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한문 자료 즉 중국어 자료에서는 원, 명, 청이라는 중국의 왕조 중의 하나라고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것입니다.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인의 왕조는 그 중에서 명조뿐입니다. 원나라는 몽골인, 청은 만주족. 그러니까 원, 명, 청이라는 패턴으

로 외우면 원나라가 망해서 명이, 명나라가 망해서 청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명과 원은 계속 최후까지 병행하며 존속합니다. 게다가 '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대원(大元)'입니다. 손을 맞잡아서 함께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의 '대원'입니다. 이 후에 몇 명인가 이 '대원'이라는 생각을 부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원의 시대의 일을 역사자료로서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했던 홀라구 우르스에서 전해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원대의 역사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은 한문 자료가 아닌 페르시아어와 아라비아어로 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까닭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자료, 그리고 티벳어 자료, 이것은 한자의 사료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한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몽골정권에 관해서는 한자자료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정치 이야기밖에 안했지요. 쿠빌라이는 원조를 만든 사람입니다만, 이 쿠빌라이의 개인적인 선생님, 즉 제사(帝師)로 팍파가 채용됩니다. 한문자료에서는 '八思巴'라고 써져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맨 처음에 다양한 종교가를 불러와서, 국가에서 어떤 종교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티벳 역사서에 써져 있는 것으로, 사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팍파는 쿠빌라이가 원조를 세웠을 즈음, 24~25세였습니다. 쿠빌라이 자신은 그 때에 40을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살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쿠빌라이는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 제-마상모라고하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마상모는 팍파를 크게 후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쿠빌라이가 제-마상모에게 "최근 대도(후의 북경)에 다른 스님이 있다. 굉장한 법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있다(그 인물은 수염 기른 라마라고 역사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만), 그 수염 기른 라마가 굉장한神通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마상모는 팍파와 그 수염 기른 라마를 불러 법력시합을 하게 했습니다.

수염 기른 라마는 카르마파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티벳불교의 카르마파라고 하는 종파의 2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티벳불교다운 이야기입니다만, '카르마파', 이거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올해(2000) 정월(1월), 일본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카르마파가 뭐냐 하면, 카르마파의 활불을 카르마파라고 부릅니다. '파'라는 것은 '어디어디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정월에 유명해진 망명자 카르마파가, 그 카르마파 17세입니다. '우겐 텅레 도제'라는 검은 모자를 쓴 사진이 유명합니다. 카르마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검은 모자입니다. 망명하기 전에 그는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편지에는 '검은 모자를 돌려받으러 다녀 오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도로 가는 도중에 붙잡혔을 때에 변명을 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되돌려 받으러 잠시 가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망명을 한 후에는, 자신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중국정부는 티벳 안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 현(現) 판첸라마를 선정할 때, 달라이라마 측에서 한

명 선정했었습니다. 이 때 중국정부 측에서도 한 명 뽑아서, 달라이라마가 뽑은 아이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아이는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아마도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중국정부는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만한 소년을 달라이라마로서 뽑을 것입니다. 그 때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망명자들이 뽑았다 하더라도, 맞겨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카르마파가 티벳 망명자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중국정부는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명해 버렸습니다. 이 분이 카르마파입니다. 그 훨씬 옛날의 제2세가 카르마파시입니다.

카르마파시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박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자의 '박사(博士)'를 몽골어로 읽은 것입니다. 불가사의한神通력을 사용하는 인물로서 동방견문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이 박시라는 사람이 카르마파시입니다.

한편 티벳의 역사서에 써져 있는 일화를 소개하면, 카르마파시는 쿠빌라이의 앞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결가부좌를 하고 즉 다리를 꼬고 앉아서 획 떠올라 산 쪽으로 향해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사하라쇼우코(麻原彰晃, 옴진리교의 교주)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파파는 무엇을 했냐 하면,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을 몸통에서 떨어뜨리고는, 몸통이 대일여래로 바뀌고 손과 발은 사불(四佛)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달라의 오불(五佛)을 자신의 몸으로 눈 앞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입체 만달라이지요. 그것을 보고 쿠빌라이는 "음-. 저 카르마파시도 대단하지만, 파파가 더 대단해."라고 해서, 파파를 자신의 가정교사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일화일 뿐이지만, 실제로 제사(帝師)가 된 파파는 몽골제국의 공용문자로서 '파파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원나라에서는 잠시 동안 공식문서와 공문서에는 전부 이 파파문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파파문자는 원조의 멸망과 동시에 몽골인들도 잊어버려서, 지금 몽골에서는 위구르계의 문자를 쓰고, 이 파파문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파의 영향은 나라 안, 원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카판디타의 결단이 얼마나 정확했던 것이었는지. 군사적으로는 지더라도, 문화로써 지도하면 티벳의 것이 된다고 예언한 그대로 되었으며, 원조가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카파(派)가 어느 정도 원조에 파고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몽골의 칭기즈 가에는 쿠빌라이 이외에도 여러 가문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넓고,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카르마파(派)도 사카파와 나란히 칭기즈 가에 여러모로 깊숙히 들어가 신앙 받고 있었습니다. 이 쿠빌라이 가의 인물은 대대로 내려오는 중에 중국사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원조의 황제를 물려받아갑니다. 몽골인의 세계 감각에서 보자면, 쿠빌라이 가에 주도권이 있긴 하지만, 각각의 가문에는 각각의 자치가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조도 초기에는 잘 나갔습니다. 황제의 이권이 꽤 크기 때문에 황위(皇位)에 오를 것인가 오르지 못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쿠빌라이 가의 가족들끼리 황제 자리를 두고 보기 흉한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7대, 제8대 몽골제국의 황제로 하이

산, 아유르바르와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말하면 무종(武宗)과 인종(仁宗)입니다만, 이 사람들에 이르면 원조도 상당히 혼란하게 됩니다.

제8대 황제의 어머니는 ‘다기’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몽골의 역사 중에서도 유명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본적도 없고 그림도 없어서 상상할 수 없지만 역사서에 의하면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이산, 아유르바르와다의 아버지는 다르마팔라인데 그 동생이 테무르입니다. 이 사람이 제6대 황제입니다. 이 제6대 테무르라고 하는 황제는 형이 죽고 난 후, 형의 아내인 다기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테무르의 황후인 부르간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다기에게는 형 다르마팔라의 아이 2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의붓자식입니다. 테무르의 황후는 다기의 존재가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 자기 남편이 젊은 미인에게 집애(執愛)하고 있고, 그 미인에게는 황위 계승권이 있는 남자 아이가 있으니깐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저 상상이 됩니다만, 그 두 명의 아이들을 궁벽한 먼 변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정권은 하이산에게 옮겨갑니다. 동생 아유르바르와다는 상당히 기가 약하고, 선이 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유르바르와다의 추종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유르바르와다를 꼬드겨서 하이산을 죽이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동생은 형을 좋아하는데 왜 형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거역하지도 못하고 황제가 됩니다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려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유르바르와다를 위한 상담사로서 티벳불교의 일급 학승인 침잠펠양을 택했습니다. 그는 구사론의 주석서로 위대한 논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급 학승이 티벳을 떠나 중국으로 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티벳의 나르탕 승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파문에 이르게 됩니다. 침잠펠양이 어느 날 밤에 귀신의 얼굴을 하고 사원의 정원을 돌아다니며 모두를 놀라게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짓을 했을까하고 생각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정말로 타이밍이 나빴습니다만, 거기에 총덴릭헬이라는 그의 스승이 지나가다 걸린 것입니다. 또 그 스승은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만두면 좋으려만 이 침잠펠양은 재미있네-하면서 뒤를 쫓아 갔습니다.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나르탕승원 안을 돌면서 도망쳤습니다. 침잠펠양은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고 말았습니다만, 그 다음날에 들켰습니다. 스승은 불같이 화가 나서 "너! 절대 파문이다!"라고 말해서 나르탕 승원에서 파문당했던 것입니다.

침잠펠양이 황제의 제사(帝師)로서 카운셀링을 하는 중에, 황제는 신앙심으로 오대산에 참배하기도 하고, 또는 불교 공부도 하여 점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침잠펠양은 제사로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먹이나 종이 등을 구입해서 사형제인 우파로셀이라고 하는 학승에게 보내고, 이것으로 티벳어로 번역된 경전의 집성을 만들도록 권유하여, 열심히 자금조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티벳대장경입니다.

4. 카르마파와 겔룩파

침잠펠양의 스승인 짬덴릭헬은 카담파(派)라는 종파의 사람인데, 원조는 점점 사카파에만

이 아니라 다른 종파에도 접근합니다. 쿠빌라이 때는 카르마파시는 채용하지 않고 팍파라는 사카파의 인물이 채용되었습니다만, 원조도 끝날 무렵이 되면 카르마파와의 연결이 두터워 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르마파는 티벳 중에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명(明)나라 시대에 이르면 쯡카파를 조사(祖師)로 한 겔룩파(派)가 계속해서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이윽고 카르마파와 겔룩파가 이대종파(二大宗派)로 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카르마파는 점점 커져서 겔룩파를 압도할 정도로 커집니다. 겔룩파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 궁리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카르마파가 굉장한 세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소위 '전생활불(轉生活佛)'입니다. 툭쿠 제도이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달라이라마는 겔룩파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활불의 최초라고 생각합니다만, 달라이라마는 전생활불의 최초가 아닙니다. 전생(轉生)이라는 제도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카르마파입니다. 이 전생제도의 이점이 뭔가 하면, 스폰서를 붙잡아 둔다는 특징입니다. 스폰서는 이 제도의 목적이며 큰 요소입니다. 스폰서가 도저히 떠날 수 없게 합니다. 어떤 절이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 관장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관장을 뽑을 때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종파에서도 가지가지이지요. 세습으로 뽑는 종파도 있고,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는 종파도 있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관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중에는 예를 들면, "전의 관장이 좋았는데, 이번 사람은 별로 좋지 않네. 지금까지 기부금이 청구될 때는 5천만정도 기부했지만 이번부터는 50만정도로 할래."라고 하는 것처럼, 관장이 바뀌면 스폰서가 떠나가버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씨족이 세우고 유지하는 종파이므로 이권의 유동성이 심해서, "이곳의 다른 절을 지원하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파는 대책을 고안해 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전의 관장과 이번 사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이예요. 탈피해서 주름이 가시고 꽤 젊디젊게 되었지만 동일 인물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생활불인 겁니다. "같은 사람이예요. 같은 사람인데 왜 지금까지 스폰서 해 온 것을 그만둔다고 하는 겁니까."라고 하는 억지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지요. 또 다른 한가지 이점은, 툭쿠를 택할 때에 예를 들면, "현재 이 절은 북쪽의 이 지역의 지원세력이 다소 약하다. 그 언저리 쪽에서 툭쿠를 택해야지."라고 지원을 받고 싶은 지역의 아이를 툭쿠로 인정하면, 그 주변의 스폰서가 전부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 친척의 아이가 전생활불인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종파를 지원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해서 카르마파가 점점 대(代)가 바뀔 때마다 커져 가는 것입니다. 스폰서는 떨어질 리가 없고, 새로운 스폰서도 차지하고, 이렇게 카르마파는 대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카르마파에 대항하기 위해 드디어 겔룩파도 그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 2세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겐둔감초가 꽤 유명하고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뒤에 3세라고 열거되는 소남감초를 그의 환생이라고 하여, 카르마파가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당시 몽골계의 사람들의 지도자는 아르탕 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르탕 칸이 이 겔룩파의 소남감초에 주목합니다. 아르탕 칸은 쿠빌라이와 팍파의 옛 일에 연유해서 소남감

초를 귀의처로 하여 신봉하려고 합니다. 소남감초는 팍파의 환생이라는 소문도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몇 년인가 뒤에 소남감초는 청해호까지 만나러 갔는데, 그 때에 아르탕 칸이 소남감초에게 몽골어로 큰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라는 칭호를 주고 스스로 공덕자가 되어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달라이라마'라는 전생(轉生)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1세도 2세도 자신이 달라이라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이름도 당연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겐룩파의 조사 종카파의 제자인 겐둔둑이라는 인물이 딱 적당한 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1세로 했습니다. 겐룩파는 게다가 기상천외한 꾀를 냅니다. 달라이라마 3세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4세를 결정할 때에 아르탕 칸의 친척 중 갓난 아기를 전생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5. 달라이 라마 정권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맨 처음에는 확실히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게다가 4세가 돌아가시고 5세를 고를 때 겐룩파는 카르마파와 나란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닝마파라고 하는 종파의 가문에서 달라이라마 5세를 뽑습니다. 몽골의 원조도 손에 넣었고, 다양한 종파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겐룩파는 커져 갔습니다. 5세의 섭정이었던 사람이 상게감초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사카판디라는 일찍이 "몽골에 군사적으로는 지지만 문화적으로 티벳이 우위에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5세의 섭정은 달라이라마를 법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두어 티벳의 중심 인물로 했습니다. 그 '법왕'인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의 양쪽에서 유라시아대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양한 작전을 세웁니다. 한가지는 군사적인 대책 즉 "오이라트 사람을 써서 하르하(현재의 울란바토르)를 손에 넣고, 게다가 청(淸)을 친다."고 하는 작전입니다. 청이란 만주인들의 정권인데, 이 세 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라트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골라서 달라이라마의 권위를 빌어 잘 구슬립니다. 그는 가르당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가르당이 거느리고 있던 나라는 중가르입니다. 현재의 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꽤 넓은 지역을 이 가르당이 한 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청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르당은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 승려였습니다. 조국 몽골의 오이라트에서 활볼로 인정되어 티벳으로 왔을 때 15, 16살 정도부터 수행을 했고, 스무살을 넘겨서는 스승이 바뀌어서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당이 환속하여 무사가 되자고 했을 때, 상게감초와 5세는 그를 불러서 달라이라마 5세의 은밀한 명령에의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게 합니다.

가르당은 오이라트 몽골족인데, 그 동쪽에 사는 하르하 몽골족의 제푸중담파라는 이름의 몽골의 전생활불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도 달라이라마 5세가 수계를 주어서 출가한 인물이니 5세의 제자인 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한 가르당은 하르하 몽골지구에 잠입하여 공략해 갑니다. 현재의 북경의 북쪽으로 조금 지난 곳까지 가르당의 세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곳에 이르렀을 때, 강희제가 다스리는 청이 서둘러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푸

종담파로부터 요청을 받아 강희제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르당과 대전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총기가 사용됩니다. 가르당군도 청군도 양쪽 모두 러시아로부터 총포를 구해서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청은 가르당군을 내쫓아냅니다. 일단 하르하몽골군을 내쫓아냈지만, 강희제로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달라이라마 5세와 상계감초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애초에 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양쪽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했으므로, 포탈라궁을 지어서 티벳 불교세계의 중심에 상응할 만한 멋진 궁전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탈라를 중심으로 티벳 불교권 전체의 신앙이 모이도록말입니다. 그것이 상계감초의 대단한 점입니다. 군사적인 수를 쓴 것 말고도 문화적인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카처럼 그곳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그곳에 모이기 위해, 그럴만한 건물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서 포탈라를 개장했던 것입니다. 지금 포탈라궁은 훌륭한 자태를 뽐내며 높이 솟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내용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한 눈속임을 쓴 것입니다. 포탈라는 안에서 보면 산의 사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커다란 빌딩 같지만 말이죠. 그래도 달라이라마 5세와 상계감초의 시대까지는 꽤 규모가 작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증건(增建)하여 고치고 장식했습니다. 게다가 내부를 훌륭한 벽화로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는 달라이라마를 이곳에 이사오게 합니다. 그 때까지 달라이라마는 다른 곳, 즉 데봉사원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6. 섭정 상계감초의 오산

한편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수를 썼던 상계감초에게 예기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오산의 첫 번째는 달라이라마 5세의 사망입니다. 포탈라의 개조 도중에, 아직 가르당이 청을 무찌르지 않은 단계에서 달라이라마 5세가 죽은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5세의 밀령(密令)으로 가르당은 군사행동을 하고 있으니 달라이라마 5세가 죽으면 섭정은 곤란해 지는 것입니다. 이 때 상계감초의 대처방안은 어떠했는가 하면, 죽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달라이라마 5세의 사망정보를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15년간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조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제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계감초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5세의 죽음을 감추고 포탈라 궁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가르당이 힘을 내기 위해서 상계감초가 대신해서 5세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가르당에게 밀령을 계속해서 보내었습니다. 오산의 두 번째는 그 문서입니다. 달라이라마 5세와 가르당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비밀의 편지가 청의 손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강희제는 격노합니다. 위험을 느낀 강희제는 가르당과 다시 전쟁을 하고 압도적으로 단숨에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강희제의 군대에 의해 가르당이 살해됩니다.

상계감초의 의도는 거기서 하나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획의 모두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이라마 5세가 죽었다는 것도 강희제가 알게 되었는데, 강희제는 잘 참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티벳과 싸우게 되면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유라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벳불교의 신자이니까, 티벳을 쳐부수면 정권자체가 위태롭게

되므로 티벳과 싸우는 것은 안되는 일인 겁니다. 상계감초는 이번엔 16살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달라이 라마 6세입니다. 사실 5세는 16년 전에 죽었습니다."라고 발표합니다. 강희제도 잘 참아서 한 때는 6세를 인정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달라이라마 6세는 16살로, 그 때까지는 소위 보통 소년입니다. 16살 소년은 섭정 상계감초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반항합니다. 상계감초의 행동에 소년은 불순함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엔 받았던 사미계를 반환하고, 세속의 옷을 몸에 걸치고 거리에 나가 사랑의 시를 부릅니다. 상계감초에게는 그 이상의 타격은 없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정권의 확립을 꿈꾸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 중심인물인 달라이라마가 스스로 성소로움과 권위를 부정하는 행동을 취하니, 최대의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계감초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달라이라마 6세는 홀로 종교자의 손으로 종교를 되돌린다는 운동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연애시 중간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계감초를 읊고 있는 시입니다.

"안은 검고, 바깥은 황색인 구름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다."

또,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성직자면(聖職者面)은 불도(佛道)의 원수이다."

이러한 시를 연애시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스무 살 정도의 청년이, 나라를 자기 것만냥 주물럭거리는 정치가, 제일가는 실력자 상계감초에게 홀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윽고 청의 황제는 그 달라이라마 6세가 방탕하고 있다며 간주하여 "그는 달라이라마가 아니다, 그는 거짓이다."라고 하여,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탄압을 가해서 다른 달라이라마 6세를 뽑습니다. 그러나 티벳 민중은 그러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 6세는 설사 승려를 그만두어도, 달라이라마 6세다. 그를 억지로 청조가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청조는 곤란해져서 마지막에는 "달라이라마 6세는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말하는 달라이라마 7세는 이 사람이다."고 말하며 다음 달라이라마 7세를 인정합니다. 청은 일관성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란, 달라이라마 6세가 그의 시에서,

"흰 새야, 잠깐 날개를 빌려 줄래.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갈 거야.

리탕을 돌고 돌아올 뿐이야."

라는 시를 읊고 있는데, 티벳 사람들은 그 시가 리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달라이라마가 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탕 태생(리탕은 현재 사천성(四川省)이 있는 땅입니다만)의 소년을 달라이라마 7세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청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달라이라마 7세는 리탕 태생의 소년으로 정합니다.

달라이 라마 6세의 연애시를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달라이라마 6세가 왜 이런 연애시를 읊어 반항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슴푸레하게나마 이해하시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이 산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도 지역도 넓은 주제이므로 간단하게는 완전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지 종교 중심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달라이 라마와 카르마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